

現代 圖書分類表 概要

任 鍾 淳

第一章 序 說

爲先 分類를 하는 主意는 무엇인가 그것 은 圖書를 內容에 따라서 同一한 系統의 것을 類集하여 區分하는 것이며 미리 準備한 分類表에 依하여 類別하는 것이다. 圖書를 分類한다는것은 各主題에 따라 여러 개의 單位로 冊을 나누어 놓는것이며 各單位는 付與된 主題 例를 들어 敎學이라 하면 이에 關한 모든 冊을 可能한限 한군데로 가카이하여 包含시키는 것이며 圖書 分類의 最終目的은 圖書를 더욱 容易하게 利用하기 爲한 것이다.

여기서 知識의 分類와 圖書의 分類를 論하여보면 知識의 分類는 同類의 것을 묶는 것이며 圖書의 分類는 同類 또는 類似的 主題를 取扱한 圖書의 무리를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知識의 分類와 圖書의 分類는 確實히 相異한 것이다. 知識의 分類는 여러가지 人間의 思想及 生活의 여러面에서 相互 近似한것 또는 關係가 있는것을 類集할 組織體系를 構成하는 學問이며 圖書의 分類는 이러한 知識의 分類를 應用해서 圖書를 分類組織에 適當한 場所에 指定하는 技術이라 생각하여야 할 것이다.

以上과 같이 知識의 分類와 圖書의 分類는 確實히 相異하다. 그러나 또 後者는 前者를 巧妙히 適用하는것에 依해서 그의 目的을 遂行하는것이므로 매우 緊密

한 關係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知識의 分類와 圖書의 分類는 一見 同一하게 보이나 實은 매우 다른 것이다. 卽 이것은 圖書의 分類上에 있어서 根本的 條件이 圖書를 取扱하는者와 이것을 利用하는者를 爲한 便利를 주는 것에 最終의 目的이 있는 것이다. 圖書館에 있어서 圖書의 分類, 配列, 保管이라는것은 讀者에 對해서 自己가 찾고자 하는 圖書를 檢索하기에 便利하게 또 그의 讀書 趣味를 誘發시키고 또 系統的 組織的 觀念을 ilder주는 目的을 가지는 同時에 圖書館의 館員에 對해서는 整理, 保管及 貸出等에 있어서 事務의 便利를 目的으로 하는것에 있는 것이다.

要컨대 圖書分類의 眞實한 目的은 圖書館利用의 經濟, 能率의 增進을 期하는데 있는 것이다. 圖書의 分類는 形而上의 知識分類의 問題가 아니며 어디까지나 圖書라는 實存物을 對象으로 하는 事實上의 問題인 것이다. 따라서 圖書分類의 範圍나 方法도 利用의 狀況을 달리하는 圖書館의 種別及 規模의 大小에 따라서 다른것은 當然한 것이다. 卽 如何히 完全無缺한 知識의 分類가 成立되었단들 이것이 금방 直輸入式으로 圖書의 分類에 適用 될수는 없는 것이며 또 여하히 優秀한 代表的인 圖書分類表가 完成 되었더라도 이것으로써 모든 圖書館의 藏書에 그대로 適用되는 것이 아니고 그 適用範圍의 制限과 多

少의 改變이 있는것은 當然한 것이다. 이것이 圖書의 分類에 있어서 實際의이고 重要な 價値인 것이다.

知識의 分類의 影響에 依해서 圖書分類의 種別을 區分하여 보면

A. 自然的配列

1. 論理의 分類法(知識의 同類에 따라 複雜에서 簡單한것으로 配列)
2. 地理의 分類法(國土別에 依한 配列)
3. 年代의 分類法(事件의 年代的 配列)

B. 人爲的配列

4. A, B, C, 順 分類法(著者名 또는 件名의 A, B, C, 順 配列)
5. 出版年分類法(出版年의 年次에 依한 配列)
6. 形大的 分類法(圖書의 形大別에 依한 配列)
7. 言語의 分類法(世界의 言語別에 依한 配列)
8. 形式의 分類法(圖書의 性質別에 依한 適列)

이러한 各種의 分類法의 어느것은 한 圖書館의 分類法으로서 使用할때 1乃至 8에서 어느 方針을 取해서 主體로 하는것은 可能한것이나 그중에 二個를 同時에 主體로 使用하는것은 全혀 不可能한 것이며 꼭 어느 한개를 主體로 策定하였으면 다른것은 從屬的 關係로 되어야한다.

上記 A, B, C, 中에서 古來에서 圖書分類法 中에서 第一 많이 쓰였고 또 現代에서도 代表的인것은 (1)의 理論的 分類法이다. 그리고 이들의 理論的 分類로서는 그 主가되는 方針下에 2에서 8까지에 이르는 여러가지의 分類方針이 類에서 主題로 다시 細分으로 各己 主從의 關係 順序를 가지고서 어떻게 合理的으로 또 巧妙히 構

成 되느냐하는 點에 여러가지의 典型的 分類法의 特色이 보여지는 것이다.

換言하면 圖書分類는 知識과 技藝의 研究 結果로된 各種圖書의 分類에 使用되어 利用되는 것을 目的으로 하는것이므로 分類의 論理 또는 知識의 分類에 典據하여야 할것이다. 그러므로 分類表는 이러한 것을 根據하여 圖書의 單位的 集合과 圖書의 利用을 爲하여 作成되는 것이며 圖書의 分類法에 있어서는 이들의 圖書를 最大限으로 많은 利用者에 利益을 주게끔 蒐集할것을 念頭에 두어야하며 圖書利用者를 爲한 分類야 말로 圖書分類表 作成의 第一原理인 것이다. 또 一般科學及 知識의 分類는 學問의 方法論에 屬하여 極히 概念的 또는 簡略함에 그치나 이에 反하여 圖書의 分類表는 圖書의 利用을 目的으로 하므로 具體的 또는 詳細하지 않으면 아니 되며 이것이 第二의 相異인것이다.

또 知識의 分類는 理論的 說明의 一貫性을 堅持하는데서 그치나 圖書의 分類表는 圖書의 具體的(各種의 主題의 合成)性質에 應할수있게 研究되어야 할 것이다. 이것이 第三의 相異인 것이다.

以上은 利用者를 爲하여 圖書를 爲한 分類의 性格에 關한것을 論하였다.

第二章 外國의 各種分類表

第一節 D. D. C.

이 分類法은 1851年12月10일에 出生하여 1931年12月26일에 逝去한 Melvil, Dewey가 創意한 것이다.

Melvil, Dewey는 1876년부터 5年間 Library Journal의 編輯者로서 勤務하였으며 1887년에 圖書館學校를 創設하였으며 1891年 目錄記入法을 出版하여 美國

圖書館의 發展에 偉大하 貢獻을 하였다.

이 D. D. C.는 1873年 그의 母校에서 採擇하에 使用되었으며 1876年에 序文이 12面, 總表 12面, 索引等 18面 計 42面, 總表 1,000綱, 索引 2,100으로된 小冊으로 第1版이 나왔다.

그後 그의 逝去의 後인 1932年에는 序文 67面, 表 907面, 索引 718面 計 1692面으로 된 第13版이 發行 되었으며 그後 美國 國會圖書館內에 D. D. C. 編纂委員會를 設置하고 繼續 改正, 增補版을 내어서 1958年에 刊行된 第16版은 2冊으로 分離되어 第1卷에는 序文 74面, 本表 1325面이 記載되었고 第2卷에는 1023面에 達하는 索引으로 되어있다.

그리고 이 16版에 包含되어 細分된 各主題의 數는

總 類	333	純粹科學	2083
哲 學	499	應用科學	4031
宗 教	760	藝 術	1407
社會科學	1,730	文 學	302
語 學	324	歷 史	1486
으로서 總合計 17,928에 達하고 있는 것이다.			

이 D. D. C.는 初版 以來 84年間 社會의 實情과 學術面의 新理論, 新體系, 新方法과 圖書分類를 爲한 分類法의 取扱에 依하여 惹起된 經驗과 이에 따른 細分項目의 變更, 追加等 多角度로 研究를 繼續하여 改訂과 增補를 거듭하여 前言한바와 같이 16版이 刊行되었고 또 다시 第17版의 새로운 版이 出版 되리라는 뉴스가 들릴만큼 知識의 分類를 根據로하여 一方 實質的面을 參酌하여 거듭 改正과 增補를 繼續하고 있는 것이다.

이 D. D. C.는 現在 第一 常識의 으로 또 實際의 으로 卓越하기 때문에 最近 70年間 美國의 公共圖書館의 大部分을 爲始하여

어느 範圍의 大學圖書館과 其他的 學校圖書館에 까지 採擇되어 使用되고 있고 英國에서도 大英博物館의 一部를 爲始하여 幾百餘個의 大小 圖書館 外 獨逸, 佛蘭西等の 歐洲諸國과 東洋諸國까지 普及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도 全體圖書館의 38%가 이를 採用하고 있다. (圖協統計 55年度分) 또한 前言한바와 같이 美國 國會圖書館內에 그 編輯部를 두고 將來의 展開가 保證되어있고 美國 國會圖書館 發行의 印刷카드에도 그의 分類番號까지 記載되므로써 그의 實用性은 一層 強化되고 있는 것이다.

Dewey가 이표를 創案한 基礎는 그가 아미우스트大學에 在學中 各圖書館의 分類表와 그의 實際的 研究에 依해서 完成을 보게 된것이며 그가 제일 參考로 한것은 伊太利 Milano의 Battezzati가 編한 分類目錄, St. Louis Public Library의 Harris의 分類表 及 N. Y. Apprentice Library의 Schwarz의 分類를 參考로 한것이다. 여기서 Harris表와 Dewey表를 보면

Harris	Dewey
2— 5 哲學	0 總類
6— 16 宗教	1 哲學
17— 31 社會와 政治學	2 宗教
32— 24 語學	3 社會科學
35— 52 純粹科學	4 語學
53— 63 應用科學	5 純粹科學
64— 65 藝術	6 應用科學
66— 75 大學	7 藝術
79— 97 歷史	8 文學
98—100 總類	9 歷史

以上과 같으며 이것에 의해 D. D. C.는 Harris를 通해서 間接으로 Bacon. Francis (1561—1625)가 17世紀初에 各科學의 研究에 必要한 精神能力을 記憶, 想像, 悟

性的 것으로 하고 이것에 對應하는 學問을 史學, 詩學, 理學으로한 知識의 分類와 關係가 있는것을 알수있다.

이表의 構成은 圖書의 形式과 知識의 分野를

人間悟性	{	0 總類	想像	{	7 藝術及娛樂
		1 哲學			8 文學
		2 宗教			9 歷史
		3 社會科學			
		4 言語學			
		5 純粹科學			
6 應用科學					

로 나누어 있다.

이것은 Francis. Bacon派의 哲學的 影響을 따른것이라고 할수있으며 即 1—6類는 人間の 悟性에 7—8類는 想像에 그리고 9類의 歷史는 記憶에 依한것으로서 人間の 知的 活動을 세가지 能力에 大別한 것이다.

이렇게 人間の 세가지 能力에 包括되는 各分類는 다시 1에서 9에 이르는 數字를 附加하는것으로서 綱으로 細別되고 다시 綱은 9目으로 細分되고 目은 다시 分으로 細分되어 이렇게하여 어디까지나 數字를 隨伴하여 거의 無限的으로 細分될 수 있다.

例를 들면

000	總類
100	哲學
200	宗教
300	社會科學
400	語學
500	純粹科學
600	應用科學
700	藝術
800	文學
900	歷史에 있어서 이한 500

의 純粹科學을 綱分하면

500	自然科學
510	數學

520 天文學

530 物理學

540 化學

550 地學

560 古生物學

570 生物科學

580 植物學

590 動物學으로 綱分 되었으며

이중에서 530의 物理學을 目으로 細分하

면

530 物理學

531 固體力學

532 液體力學

533 氣體力學

534 音響

535 光學

536 熱

537 電氣 및 磁氣

538

539 分子, 核, 原子物理學으로 細

分되며 이中에서 539를 分으로 細分하면

539 分子, 核, 原子物理學

539.1 分子構造

.2 固體物理學

.7 核物理學

.8 原子構造로 나누어져 있으며

各項目에서 이 以上 더 細分되어 있다.

그리고 이 D. D. C에는 各類에 共通되는 一般形式區分과 地理區分, 國語共通區分, 文學形式區分과 다른 局限된 主題에서 表自體에 나타나 있지 않으면서도 適用되는것 등이 있다.

a. 一般形式區分

一般形式區分에는 01—09가 있으며

01, 02, 07, 09는 主題의 取扱에 關한것으로서 內的形式이며 03—06과 08은 表現에 關한것으로서 外的形式인 것이다.

여기서 01은 100의 學哲, 07은 370의 教育, 09는 500의 歷史와 助記性을 有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03에서 08은 다음과 같이 總類의 030에서 080까지와 같이 助記性을 갖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 | |
|-----------|-------------|
| 03 辭典 | 030 百科辭典 |
| 04 隨筆, 講論 | 040 一般講論 |
| 05 定期刊行物 | 050 一般定期刊行物 |
| 06 學會 | 060 一般學會 |
| 08 全集 | 080 全集이며 |

이 一般形式區分의 使用에는 어느곳에서나 0을 하나 붙이고 使用한다.

어느곳에는 指示事項이 있으며 이미 그 位置에 다른 主題가 있을 때에는 0이 두個 붙어서 使用된다. 例를들면 340.3에는 이미 高代법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法律辭典은 340.03이 되는 것이다.

b. 地理區分

歷史地方區分과 地理地方區分의 助記性에 있어서 D.C.의 910은 地理와 旅行記 930—990은 歷史며 그 중에서 930은 古代 940—990은 現代國家에 使用된다.

D. D. C.의 各主體下에 「930—990에 依하여 細分해라」라고 하는것은 이러한 番號에 注意할것이다.

地理區分을 例舉하면

- 932 古代埃及
- 933 古代 히브리 文明
- 935 古代近東
- 936 古代歐羅巴種族
- 937 古代羅馬
- 938 古代希臘
- 939 其他 古代文明國

940 歐羅巴 歷史

941 스크틀런드

942 英國

943 獨逸

944 佛蘭西

945 伊太利

946 西班牙

947 소베트

948 스카디나비아

949 其他

950 亞細亞

960 阿弗利加

970 北美洲

980 南美洲

990 太平洲이며 이 地理區分을 他主題內에서 適用할때는 普通으로 0이 하나 덧붙이어서 適用 되는것이 通例이온대 主題의 配列上에 따라서 “0”이 빠지며 또는 9가 빠지며 또는 09가 함께 빠져서 使用되는 경우가 있다.

例 327.73에서는 09가 함께 빠진 좋은 例이다. (詳細한것은 國立圖書館館報에 小著 D. D. C. 助性記號에 對하여 4291年12月號부터의 繼續物을 參考하시기바람)

c. 特殊主題 應用區分

特殊한 어느 主題內의 細分된 番號가 應用될만한 다른 主題에 指示事項으로 適用되어 일일이 그 主題內에 細分番號를 附加하는 繁雜性을 떠나서 他主題의 細分番號內에서 特定한 番號를 따서 그를 適用하므로써 分類를 도우는데 있다. 이는 一般形式區分의 廣義의인것에 對하여 狹義의 性格을 가진 것이며 이러한 指示事項으로 因하여 實質의으로 使用되는 面에 比하여 分類表의 複雜性을 避한것을 볼수있다.

이 特殊主題 應用區分에 대해 第16版을 보면

各主題內에서 細分 番號를 應用 받는
곳이

總 類	21	純粹科學	2
哲 學	1	應用科學	33
宗 教	33	藝 術	28
社會科學	27	文 學	6
語 學	1	歷 史	7

이나되며 다른 主題에 自己의 細分된
番號를 適用시키는 곳이

形式區分	11	語 學	13
分類全體	26	純粹科學	12
總 類	15	應用科學	24
哲 學	1	藝 術	13
宗 教	31	文 學	6
社會哲學	4	歷 史	3

이되며 이것을 應用되는 種別로 보면

分類全體	1種	純粹科學	6種
哲 學	1種	應用科學	11"
宗 教	7"	藝 術	9"
社會科學	1"	文 學	4"
語 學	10"	歷 史	1"

으로서 58種의 各主題의 分類의 細分番
號가 159곳에 適用되고 있는 것이다.

D. 語學과 文學과의 助記性

400과 800의 語學과 文學이 410과 8
10을 除外하고는 國家區分이 一致하고
있다.

420 英語	820 英國文學
430 獨逸語	830 獨逸 " "
440 佛語	840 佛國 " "
450 伊語	850 伊國 " "
460 西語	860 西國 " "
470 羅甸語	870 羅甸 " "
480 希臘語	880 希臘 " "
490 其他語	890 其他 " "

이러 또 이 語學의 國語區分은 030—
080과 220.5의 聲韻의 翻譯, 299 基督

教以外的 宗教, 572.8 人種別等等에 細
分에 適用되고 있으며 一部分이저하는
歷史의 地方番號와 助記性을 가지고 있
다.

420 英語	942 英國
430 獨語	943 獨逸
440 佛語	944 佛國
450 伊語	945 伊國
460 西語	946 西國

E. 國語共通區分

여기서는 한나라의 區分을 다른 國語
의 內容 細主題에 同一하게 適用하고
있다. 即

4×1	文學
4×2	語原
4×3	辭典
4×4	同義語
4×5	文法
4×6	
4×7	方言! 俗語
4×8	教科學
4×9	其他

F. 文學形式區分

8×1	詩
8×2	戲曲
8×3	小說
8×4	隨筆
8×5	演說
8×6	書簡
8×7	風刺
8×8	其他로서 여기서는 8

20—890 以外的 其他 國語에 依한 文學
은 우선 400의 語學에 依하여 그 番號
를 차저내고 그의 第一數字 4를 8로 代
身하여 그 끝에 文學形式의 番號를 添
付하면 된다.

뒤이 十進分類法은 單지 知識을 十區分

해서 無限의 細分에 應할뿐 아니라 그 間에 助記性의 便利를 加味한 形式地理區分 其他 人爲의 研究가 되어 있다.

그러나 듀이 十進分類法의 第一 顯著한 功績으로서는 同分類에 相關索引을 完成 附加할 것이다. 同索引은 分類中에 使用된 모든 類, 綱, 目, 分 其他의 事項을 모두 集成하여 이것을 ABC順으로 配列하여 또 主題의 各自의 連關을 明示한 것이다. 即 必要한 主題는 이것에 對照하는 分類記號에 依해서 그 性質과 位置를 제일 端的으로 알수있게 된다.

듀이 十進分類法의 長點은

(1) 簡單한것 (2) 融適性이 있는것. (3) 記號가 簡單한것. (4) 實際의인것. (5) 記憶의 要素가 있는것. (6) 圖書以外의 小冊子, 新聞記事 오림의 整理에도 應用할 수 있고 (7) 數字를 記號로한것이므로 國際의으로 共通의인것. (8) 大多數의 圖書館에 있어서 使用되는것. (9) 相關索引이 있는것. 이며 D. D. C. 의 短點은

(1) 機械的, 人爲의인것. (2) 主題 配列에 非論理的인것. (3) 類綱의 配置가 不平均 (4) 舊式의 思想에서의 配列인것.

(心理學 같은 곳) (5) 新項目 插入에 對한 準備의 缺如 (6) 十進의 記號가 混亂하여 있는것. (7) 分類記號가 너무 긴것. (以上은 베른女史의 論임) (8) 大多數의 圖書館에서 使用한다 하나 이것은 現在 全世界의으로 普及되어 있는 實情에 있어서 너무나 西歐에만 體重되어 世界全體의 面에 均하여 어느곳은 不均衡한 點을 免치 못한다 끝으로 Dewey表에 非論理的이라는 短點이 例學되었음은 上記한바와 같으나 이點에 있어서 第12版 序文을 보면 Dewey는 分類表 構成에 있어서 理論의 一貫을 目的으로 하지않고 「實際의 活用과 經濟와는 대단히 問題 解決에 對한 關鍵이다. 또 理論의 精巧를 完成하기 爲해서 本表의 改變을 行할 必要를 느끼지 않는다. 萬若 이것을 敢行하면은 그의 結果는 期必코 많은 實用性이 減少케 되며 運用經費의 增大를 持來할것이다.」하였으며 또 「너무나 理論의으로 計劃한것은 完全한 理解를 困難하게 하고 또 應用하여도 千人中의 一人이 겨우 實際의으로 驅使할 수 있는 뿐이다.」라고 말한것을 參考로 記載하는바이다.

(筆者 延世大學校 中央圖書館 司書)

<再 版>

朴 奉 石 編

朝鮮東書編目規則 (K. C. R.)

이번 梨花大學校 圖書館學研究會에서 K. C. R. 改訂版을 프린트版으로 發行하였사오니 所要部數를 請求하시면 實費 400圓에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郵票可)

朝鮮十進分類法(K. D. C.)도 곧 發行합니다.

서울特別市 西大門區 大峴洞 1

梨花大學校 圖書館學研究會 發行